



Commodity Futures

Base metal

러-우 긴장 절정 - 알루미늄, 니켈 주시

Daily | 2022. 2. 22. (화)

Commodity Analyst
박기민 연구원
prompt.park@samsung.com

금속				
LME (3M)	전일 정산가	일간 등락률	LME 재고증감	
구리	9,898	-0.6%	▲ 300	
알루미늄	3,280	+0.5%	▽ 5,800	
니켈	24,349	+0.8%	▽ 54	
아연	3,558	-0.5%	▽ 425	
납	2,334	-0.6%	▽ 1,100	
주석	44,152	+0.0%	▽ 10	
Comex	월물	단위	가격	일간 등락률
금	Apr	\$/oz	1,900	-
은	May	\$/oz	24	-

Cash to 3M Spread		
LME (3M)	전일 Spread	일간 변동폭
구리	48 B	▼ 6
알루미늄	45 B	△ 9
니켈	522 B	△ 57
아연	24 B	▼ 1
납	8 B	▼ 4
주석	217 B	△ 42

주요 시장 지표		
Dollar index	96.14	+0.1%
CNH Futures	6.3408	+0.1%
BBG Commodity index	111.63	-
WTI Futures	91.07	-
EUA Futures	89.68	+0.2%
S&P500 index	4,349	-
US 10yr T-note yield	1.9310	-

러시아가 공표한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독립지역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에 투심 악화, 비철은 제한적 하락 압력

전일 비철시장은 미국 증시가 대통령의 날을 맞아 휴장이었던 와중 러시아-우크라이나 무력충돌 위기 고조되며 투심 악화,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알루미늄**과 **니켈**은 상승, 그 외 비철은 하락 마감. IAI 에 따르면 1 월 1 차 알루미늄 생산량은 YoY 4.46% 감소, 중국(YoY -7.82%)과 서유럽(YoY -8.07%) 생산량에서 큰 감소폭을 보였음. 중국과 서유럽 세계 생산 비중은 각각 56.2%와 4.8%. 전쟁(국지전) 발발 가능성이 높아진 현재 알루미늄과 니켈 Panic buying 이 촉발된 가능성이 있음.

다만 급락한 나스닥 선물(-1.86%), 유럽 증시(-2.17%), 러시아 증시(-13.12%)와 달리 비철은 공급 차질 우려 등에 비교적 지지 받는 모습을 연출함. 유럽 증시는 장초반 지정학 리스크가 완화되는 듯한 모습에 상승세를 보이다 23 일로 예정되어 있던 마-러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지자 급락세를 시현. 한편 **미국 1 월 경기선행지수**는 전월비 0.3% 하락하며 전망치 하회(MoM +0.2%), 오미크론과 물가 상승 압력, 지정학 불확실성 등에 작년 2 월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함.

푸틴 돈바스 분리독립지역 독립국 인정, 전쟁 발발 위기

한국시간 22 일 06:41, 로이터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 후, 러시아 평화유지군 우크라이나 진입 명령을 내리며 우크라이나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음. 독립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언제든 러시아군 파병을 가능케 하는 것,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합의된 상황이 아니기에 사실상 침공이라 볼 수 있음. 평화유지 명목으로 미리 군대를 진입시켜 놓은 후 이제껏 쌓아뒀던 명분에 작은 불씨를 더해 전쟁을 일으키는 전략인 것임. 지난 주말~현재 사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 러시아군 병력 증강, 러-벨라루스 연합훈련 돌연 연장, 도네츠크 폭발, 돈바스-국경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무력 충돌(가짜뉴스 포함) 등 돌아보면 독립국 인정(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을 통한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프랑스 중재 마-러 회담에도 만나는 주겠지만 별다른 계획은 없다고 지지부진한 태도를 일관해 왔었음. 현재 흐름은 과거 조지아 전쟁때 보였던 행보와 매우 유사하며, The Weather 예보에 따르면 3 월 둘째주부터 최고온도가 10°C 이상으로 높아져 그 이전 군사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다만 전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아 증시에는 단기적 급락 재료(이후 불확실성 해소 재료), 러시아 제재 등에 원자재에는 중기적으로 공급 차질로 인한 상승 압력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미국 주택 가격 상승추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미국 1 월 기존주택매매는 650 만채로 이전치와 전망치를 모두 상회. 미국 남부지역(선벨트)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 해당 지역은 친기업 정책, 낮은 전력가격, 낮은 노조 영향력 등에 반도체, 자동차 기업 생산기지로 각광받고 있음. 소득이 충분하다면 (25 일, 1 월 개인소득 지표 주목) 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것으로는 수요를 억제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 MBS 상승전 주택 구매 수요 쏠림 현상에 의한 단기적 상승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 리쇼어링, 실물자산 선호도 상승, 고자산(소득)자 증가 등에 주택 수요, 가격 상승추세 지속될 것으로 전망. 주택 재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YoY -16.5%).



Commodity Futures

Energy & Agriculture

러시아, 독립국 승인과 평화유지군 진격 명령

Daily | 2022. 2. 22. (화)

Commodity Analy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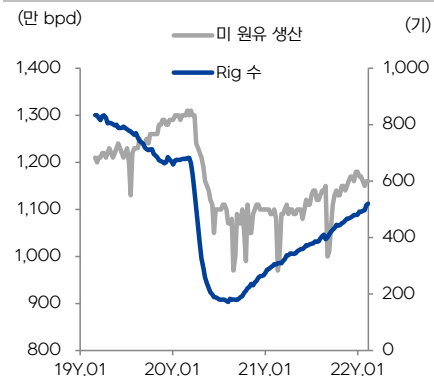
김광래 선임연구원

kray.kim@samsung.com

에너지				
	월물	단위	가격	일 등락률
WTI	Mar	\$/배럴	91.07	-
Gasoline	Mar	\$/갤런	2.670	-
Brent	Apr	\$/배럴	95.39	+4.0%
천연가스	Mar	\$/MMBtu	4.43	-

미국 EIA 주간 재고 변동			
원유 재고		가솔린 재고	
+112	만 bbl	-133	만 bbl

미국	Rig 수 (기)	원유 생산 (만 bpd)	
1주 전	520	4	1,160
2주 전	516	19	1,160
3주 전	497	2	1,150
4주 전	495	4	1,160



농산물				
	월물	단위	가격	일 등락률
Corn	May	¢/bu	652.75	-
Soybean	May	¢/bu	1,603.50	-
Wheat	May	¢/bu	804.00	-
Coffee	May	¢/lb	246.00	-
Sugar	May	¢/lb	17.62	-
Cotton	FALSE	¢/lb	121.16	-

에너지[NYMEX, Presidents' Day로 휴장]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다. 전일 아시아장에서만 하더라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주재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애매모호한 보도에도 유가의 추가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푸틴과 마크롱 대통령이 100분 넘게 전화통화를 하고 러시아와 프랑스 외무장관의 접촉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오면서 외교전에서 일말의 성과를 기대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이 통화에서 현재 벨라루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 훈련이 끝나는 대로 러시아군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언하는 등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애초에 프랑스를 동등한 협상 대상으로 보지 않은 듯하다. (모스크바까지 찾아간)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도 프랑스는 EU의 맹주국이 아니고 어떠한 약속도 한적이 없다며 회담 이후 심드렁한 모습을 내비쳤는데, 이번에도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와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일방적인 회담 추진이었던 것 같다.

밤사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갑자기 동부 돈바스 지역 내 친러 반군 공화국들(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다. 또한 돈바스 지역 내 최근 우크라이나측의 공격(러시아측의 주장)으로부터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안보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병력을 파견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 반군 지도자들과 ‘우호 협력 원조’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고 즉시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것을 명령했다. 다만 아직 언제 진격할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U주요국들은 말을 최대한 아끼면서 만약 합병이 있을 경우 제재가 있을 것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고 나섰으며,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총리는 ‘실망’을 표시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국도 나름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인들의 신규투자 및 무역 금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기존에 이야기되었던 ‘혹독한 경제 조치’도 함께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애초에 서방국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시에 하겠다고 했던 수출입 제재 자체가 매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인 스마트폰, 자동차, 첨단 산업 등등에 대한 것들로, 러시아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에너지(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제재는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았다. 유럽은 천연가스 사용량의 40%와 원유 2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 합의 논의가 이루어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지만 나토 동진을 통해 주변 나토국들에 대한 군사 원조만 소폭 보장하는 수준에 그쳤다.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병력을 보낼 명분도 부족하고 실익도 적다는 판단이 선듯하다. 안타깝게도 서방국들의 이기심과 전략적 판단미스로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는 더욱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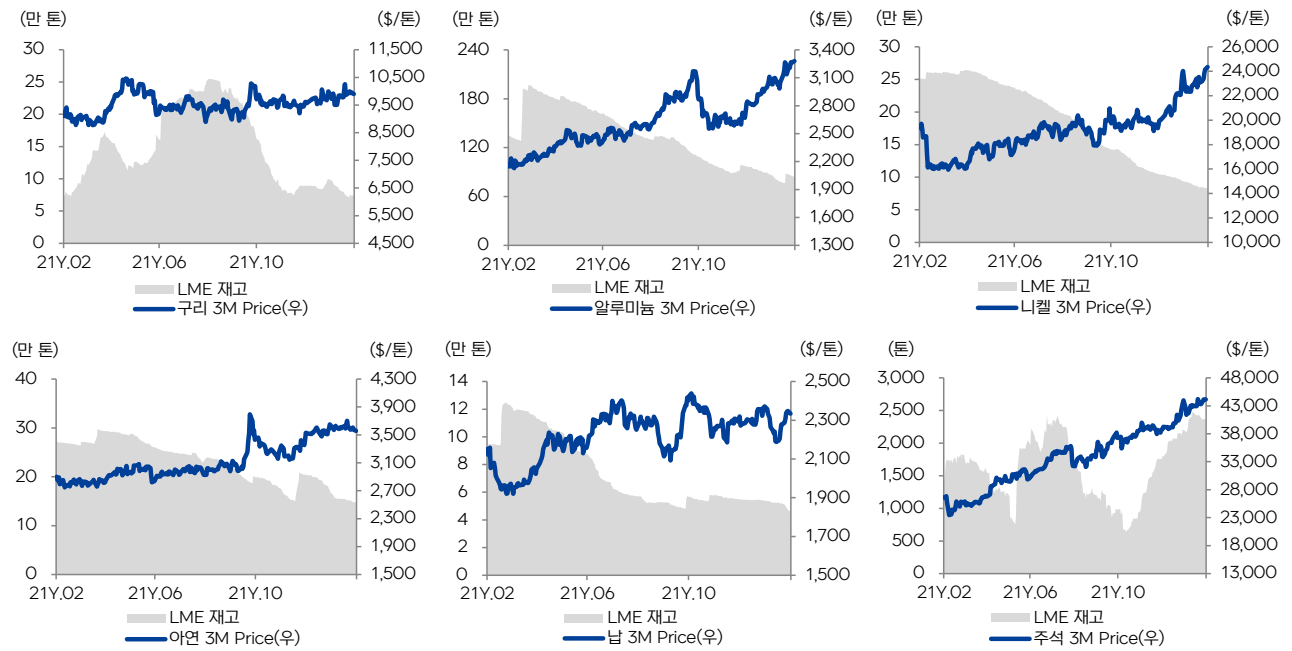
농산물[CBT, Presidents' Day로 휴장]

Base Metal 가격

LME(3M)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일간 변동폭	일간 등락률	Cash 3M	Open Interest	Official (Cash)	Official (3M)	Cash Average	SHFE(3M) 일간 등락률
CU	9,964	9,995	9,875	9,898	-58.0	-0.6%	48 B	247,053	9,960	9,910	9,820	-0.0%
AL	3,266	3,292	3,241	3,280	17.0	+0.5%	45 B	648,828	3,315	3,270	3,065	-0.6%
NI	24,300	24,610	23,900	24,349	205.0	+0.8%	522 B	224,119	24,870	24,350	22,775	-1.2%
ZN	3,581	3,596	3,551	3,558	-17.5	-0.5%	24 B	241,517	3,600	3,574	3,623	-0.7%
PB	2,333	2,347	2,316	2,334	-14.5	-0.6%	8 B	101,636	2,344	2,338	2,311	+0.9%
SN	44,075	44,230	43,600	44,152	12.0	+0.0%	217 B	13,714	44,150	44,000	42,473	+0.3%

Base Metal 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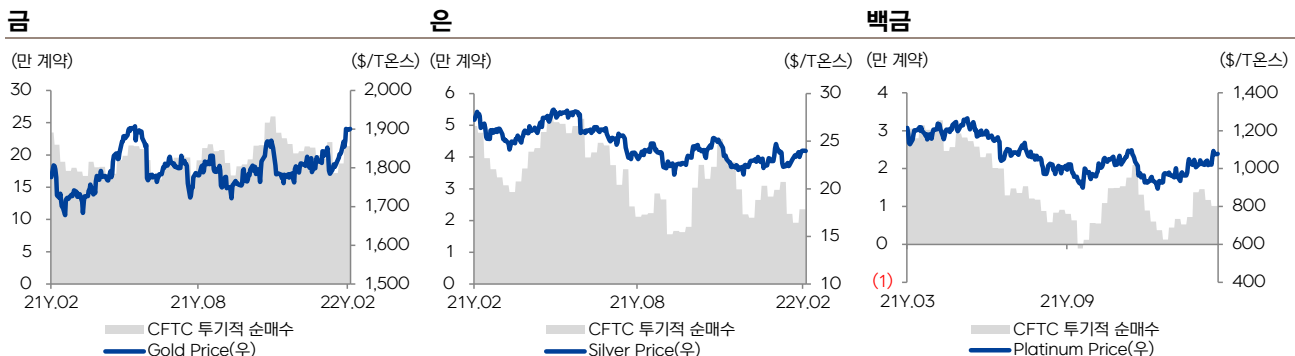
LME	재고(톤)	증감	ON WARRANT	CANCELLED WARRANT	전체재고 중 C/W %	
					비중	전일 대비 증감
CU	74,375	△ 300	56,925	17,450	23.5%	-0.6%p
AL	843,475	▼ 5,800	541,300	302,175	35.8%	+2.5%p
NI	83,274	▼ 54	39,636	43,638	52.4%	+0.2%p
ZN	147,350	▼ 425	129,625	17,725	12.0%	-0.4%p
PB	46,050	▼ 1,100	40,300	5,750	12.5%	-2.0%p
SN	2,360	▼ 10	2,020	340	14.4%	+0.7%p



Precious Metal

Comex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이전일 증가	일간 변동폭	일간 등락률	LBMA AM Fix	LBMA PM Fix
금	Apr	\$/oz	1,901	1,905	1,888	1,900	1,900	△ 0.0	-	1,895	1,894
은	May	\$/oz	23,900	24,165	23,745	24,038	24,038	△ 0.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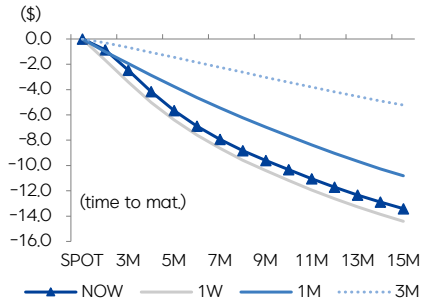
주요 차트: 니켈 Forward cu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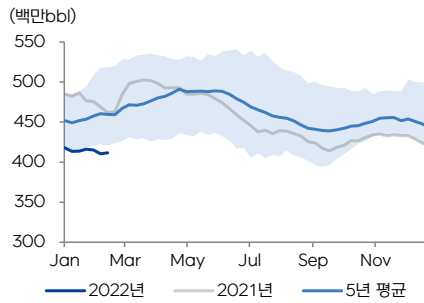
Energy

품목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변동		거래량	미결제약정
							\$	%		
WTI Crude Oil	Mar	\$/배럴	91.63	92.66	89.03	91.07	△ 0.00	-	1,239,922	2,069,873
Gasoline	Mar	\$/갤런	2.650	2.688	2.587	2.670	△ 0.000	-	183,501	391,307
ICE Brent Crude Oil	Apr	\$/배럴	94.29	97.4	92.57	95.39	△ 3.74	+4.0%	669,151	2,292,177
Natural Gas	Mar	\$/MMBtu	4.517	4.654	4.371	4.431	△ 0.000	-	312,708	1,097,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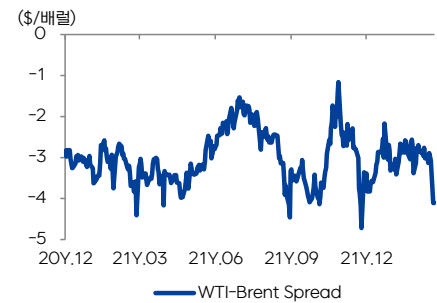
WTI Forward Curve



미국 주간 원유 재고 E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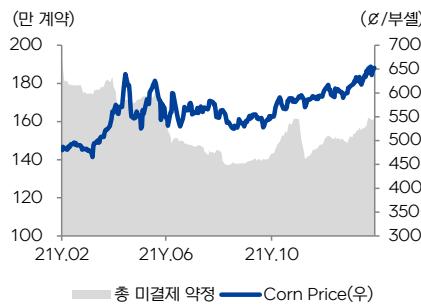
WTI-Brent Spre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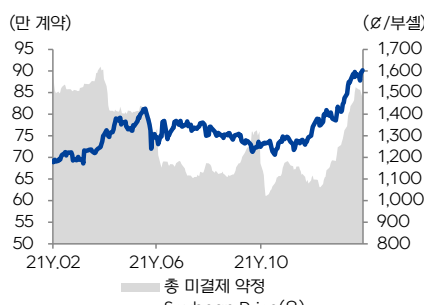
Agriculture

품목	월물	단위	시가	고가	저가	정산가	변동		거래량	미결제약정
							Cent	%		
CBT Corn	May	¢/bu	647.8	656.8	646.0	652.8	△ 0.00	-	378,978	1,595,194
CBT Soybean	May	¢/bu	1,594.0	1,611.0	1,590.0	1,603.5	△ 0.00	-	267,034	838,647
CBT Wheat	May	¢/bu	804.3	818.8	797.0	804.0	△ 0.00	-	126,618	386,701
ICE Coffee	May	¢/bu	250.0	250.5	242.9	246.0	△ 0.00	-	35,718	251,465
ICE Sugar	May	¢/bu	17.7	17.9	17.5	17.6	△ 0.00	-	107,617	861,172
ICE Cotton	May	¢/bu	119.5	121.5	119.5	121.2	△ 0.00	-	24,178	236,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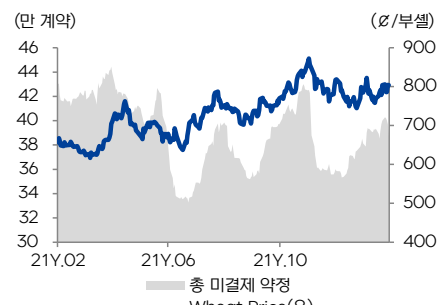
Co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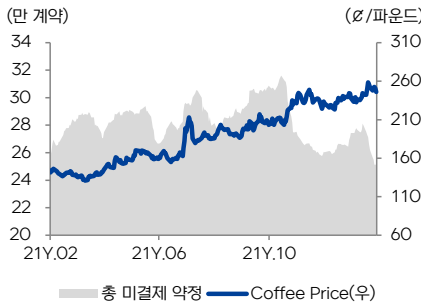
Soyb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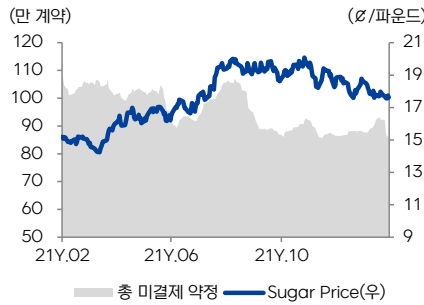
Wheat



Coffee



Sug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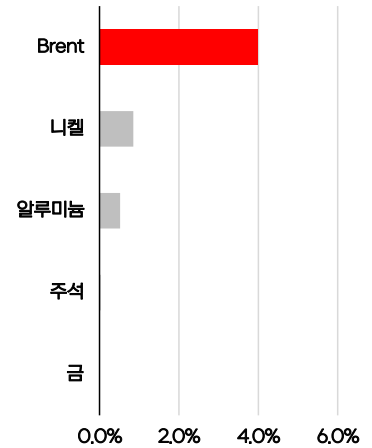
Cot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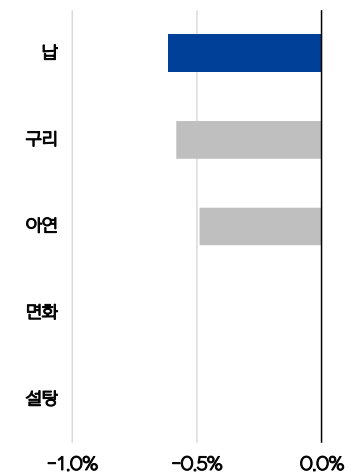
원자재 히트맵

	일간	주간	월간	연초대비	3개월	6개월	1년	연초대비
구리	-0.6%	-0.2%	-0.4%	+4.1%	+1.9%	+5.8%	+11.1%	+1.8%
알루미늄	+0.5%	+2.0%	+7.9%	+8.6%	+22.9%	+25.3%	+53.9%	+16.8%
니켈	+0.8%	+5.1%	+1.3%	+9.1%	+19.7%	+27.0%	+24.3%	+17.3%
아연	-0.5%	-0.5%	-2.1%	-0.8%	+7.8%	+17.6%	+23.5%	+0.7%
납	-0.6%	+2.0%	-1.6%	+4.0%	+3.6%	+0.7%	+7.8%	+1.3%
주석	+0.0%	+2.0%	+0.4%	+2.6%	+13.6%	+34.1%	+68.4%	+13.6%
금	-	+1.6%	+3.6%	+6.1%	+6.2%	+5.8%	+6.3%	+3.8%
은	-	+0.6%	-1.3%	+7.1%	+2.2%	+0.5%	-12.3%	+2.8%
WTI	-	-4.6%	+7.0%	+6.6%	+17.9%	+37.3%	+67.9%	+21.6%
가솔린	-	-4.0%	+9.1%	+7.6%	+18.0%	+32.8%	+66.1%	+19.8%
Brent	+4.0%	+0.8%	+11.7%	+9.0%	+21.5%	+41.8%	+69.2%	+25.8%
NG	-	+5.6%	+17.2%	-2.3%	-6.2%	+15.5%	+45.2%	+24.6%
옥수수	-	-0.4%	+6.3%	+4.5%	+10.1%	+15.9%	+38.6%	+9.7%
대두	-	+1.9%	+12.7%	+7.2%	+23.9%	+19.4%	+38.7%	+18.9%
밀	-	-0.2%	+2.5%	+4.9%	-7.8%	+8.1%	+24.4%	+3.8%
커피	-	-0.8%	+3.3%	+4.5%	+1.8%	+29.4%	+79.9%	+8.8%
설탕	-	-0.2%	-5.3%	-1.0%	-10.9%	-10.0%	+17.1%	-5.3%
면화	-	+0.5%	+2.7%	-1.6%	+6.2%	+30.3%	+44.7%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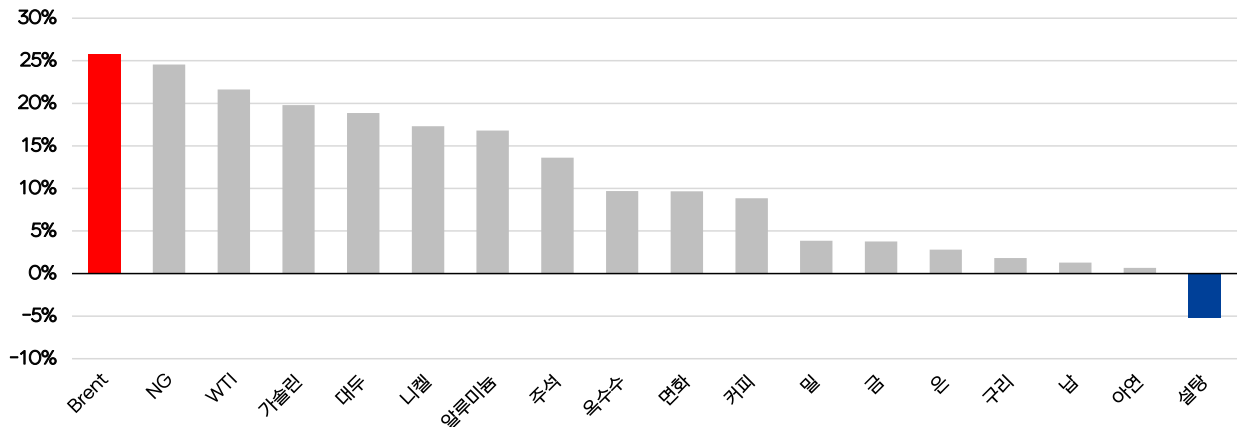
일간 상승률 Top 5



일간 하락률 Top 5



연초대비 상승률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며,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